

별을 쏘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4. AUTUMN vol.002

Healing Travel

강릉, 커피에 취하고 단풍에 반하다

World Wide

글로벌 최강,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History of Sungwoo Hitech

신뢰와 화합의 기업문화로 내일을 향해 달린다





SUNGWOO HITECH MAGAZINE

2014. AUTUMN vol. 002

별을 쏘다 ☆

발행일 | 2014년 10월 31일 (통권 제2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태, 강승호, 강현지, 김유리, 김지영,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박노실, 박상정, 박은혜, 손재경, 신민환, 안상수,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이정민, 최수영, 최용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hitech.com (인사노무팀 T. 070-7477-5022)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T. 051-623-1906)

04 Healing Travel

강릉, 커피에 취하고 단풍에 반하다

10 현장 24시

서로의 열정을 지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2 Campus Recruiting

슈퍼패스로 성우하이텍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14 Workshop

소통하라, 그제 되지 않는다. 공감하라!

16 World Wide

글로벌 최강,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20 Here & There

유럽의 심장 오스트라바에 가다

“가을에 스며들다”

마치 물감이 퍼지듯 가을은 전국 구석구석에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질어진 가을 냄새는 코 안 가득 스며들어 우리를 간질입니다.
이때쯤이면 못 이기는 척 나오는 재채기처럼 가을하면 마음 어딘가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특, 외로움이 나오기도 하고, 당장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만 같은 마음도 불쑥 고개를 내밀니다.
쏟아져 나오는 마음들은 '가을이니까'라는 한 마디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무치는 가을, 그 속에 스며들 준비가 되셨나요?
가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3 **History of Sungwoo Hitech**
신뢰와 화합의 기업문화로 내일을 향해 달린다

28 **Challenge Sungwoo**
가을로 물들어 가는 바다 위를 달린다

30 **Column**
융복합 창조, 협업에 길이 있다

32 **Special Item**
이런 선물 어때?

34 **Interview**
어스름 내리는 안개의 시간에 잠기다

38 **Car Life**
SOUND DESIGN? 자동차 사운드 디자인의 세계

40 **Sungwoo Family**
자동차 부품, 아빠표가 최고!

42 **Healthy Life**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 발! '공공' 앓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44 **Social Contribution**
별빛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따뜻한 마음이 차오른다

46 **Harmony**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하나 되어

47 **Issue & News**

50 **Sungwoo Campaign**
SAVE ENERGY, SAVE EARTH



g a n g n e u n g

가을을 마시러 강릉으로 가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바닷가 근처에서 뜨겁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진다. 시린 바닷바람과 그윽한 향을 품은 커피의 뜨거운 김이 한꺼번에 얼굴에 와 닿는 느낌은 묘한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오묘한 느낌이 그리울 때, 마침 바람이 제법 쌀쌀해지고, 하늘이 청자 빛으로 물들 즈음 이라면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강릉으로 달려간다. 이왕 가는 것, 별처럼 빛나는 단풍까지 눈에 담고 오면 이보다 반가운 가을 마중이 또 어디 있을까.



강릉, 커피에 취하고 단풍에 반하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은 강릉이라는 해안도시가 갖는 상징적인 이미지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강릉은 곧 여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미처 몰랐다. 이 욕심 많은 도시는 가을마저 찬란하다는 것을. 여름의 경포대와 주문진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 가을, 강릉으로 향할 일이다. 단풍 곱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오대산 소금강과 대관령, 그리고 가장 깊고 맛 좋은 커피가 바로 강릉에 있다.



강릉은 자타가 인정하는 ‘커피 도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22만 인구 중소도시에 카페만 300여 개가 자리한다. 술하게 마주치는 스타벅스의 전국 지점수가 400여 개임을 떠올린다면 분명 많은 숫자다. 실제로 강릉에서 카페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안목해변을 위시해서 강릉은 해변부터 시내 곳곳, 심지어 술숲 자락 구석까지도 카페가 자리 한다. 상징적으로 키워지는 커피나무 외에는 커피가 생산

되는 고장도 아니건만, 어째서 이 도시에는 카페들이 이토록 넘쳐나는 걸까. 강릉 토박이이자 관광안내소에서 안내를 맡고 있는 이해자씨는 강릉이 커피의 도시로 입지를 굳힌 기원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자판기요, 안목해변은 자판기가 많아서 길 카페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삼박자 커피’를 단돈 몇백 원에 내놓는 자판기가 커피 도시의 시발이었다. 무던히도 한국적인 기원이 아닌가.



1 대관령 자락, 강릉의 커피브랜드 '커피커퍼'에서 운영하는 커피 박물관 2 강릉 커피의 성지, 안목해변에서 즐기는 바닷가 커피 3 울곡 선생이 감탄한 작은 금강산인 오대산 소금강

강릉 커피의 기원, 안목해변에서 즐기는 바닷가 커피



강릉의 대표 명소 경포해변과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목해변. 80, 90년대 안목해변을 추억하는 이들은 종이컵에서 전해오던 삼박자 커피의 온기를 기억한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작은 횡집들이 단출하게 모여 있었고 디저트는 자판기 커피라는 공식이 자연스러웠다. 그때 자판기 숫자만 백여 대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는 마치 영화로웠던 자판기 시대를 추억하듯 몇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정도다.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안목해변에 오면 횡집에 들르지 않아도 오래 자판기 커피 한 잔은 뿔아 마셨다. 그것은 곧 바다의 운치를 즐기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안목하면 커피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해변에는 하나둘 ‘업그레이드’된 커피가 팔리기 시작했다. 볶고 갈고 내리는 고급 커피의 시대, 카페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때마침 커피에 있어서 ‘전문가’라 칭해지는 이들이 강릉으로 몰려들었다. 자판기 커피가 강릉 커피의 기원이었다면 보헤미안과 테라로사로 대표되는 카페는 일종의 미

디어였다. 강릉 커피의 메카로 통하는 이 두 곳은 강릉에 커피농장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커피에 있어 유서 깊은 고장으로 만든 역할을 했다. 보헤미안의 대표가 한국 커피 1세대로 통하는 ‘3박 1식’ 중 유일한 현역인 박이추 선생이다. 우리나라 핸드드립 커피의 명장으로 불리는 그는 2000년에 강릉 영진해변에 보헤미안을 오픈했다. 이제 강릉 커피 역사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 되었다. 2002년에 문을 연 테라로사는 이른바 커피 공장으로 명성을 떨쳐왔다. 한적한 시골에 우뚝 세워진 거대한 로스팅 팩토리에서는 연일 커피 볶는 향기로 가득하다. 커피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들어온 원두와 수많은 커피 관련 소품, 비중이 작지 않은 베이커리까지 품고 있어 본점은 물론 이제는 강릉을 비롯해 전국 각지로 퍼진 지점들도 연일 커피 애호가들로 붐빈다. 보헤미안과 테라로사가 명성을 키워가자 강릉 곳곳에는 하나둘 카페가 늘어났다. 안목해변이 있는 강릉항지구, 경포지구, 사천지구, 연곡지구가 대표적인 카페 밀집 해안 지역이고, 강릉 시내에서는 신시가지로 일컬어지는 교동택지 일대에 트렌디한 카페들이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별처럼 빛나네, 소금강

커피 향을 충분히 만끽하고 속을 데웠다면 이제 가을 빛깔을 눈에 담으러 가야 한다. 가을빛이 충만한 그곳은 웅당 오대산 자락의 소금강이 되어야 마땅하다. 율곡 선생이 감탄한 작은 금강산. 단풍놀이를 하기에는 여기, 이 작은 금강산만한 곳이 또 없다. 모르긴 몰라도 북녘의 금강산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계곡이 넓고 수려한 까닭에 수변 바위는 가을이면 점점이 떨어지는 붉고 노란 단풍들로 소금강의 캔버스가 된다. 사실 오대산 소금강의 트래킹 코스는 등산객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인기도 많은 코스다. 이만한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또 없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소금강 입구의 무릉계부터 진고개까지 약 13km 정도의 등산로가 소금강 트래킹의 정식 코스다. 그러나 '단풍놀이'를 위한 코스는 2.5km면 충분하다. 무릉계-십자소-식당암-구룡폭포를 잇는 구간이다. 왕복으로는 넉넉잡아 3시간, 부지런히 걷는다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 좀 더 걷고 싶다면 1.7km를 더 걸어 만물상을 거쳐 백운대까지 가도 좋다. 구룡폭포까지는 아이들도 무난하게 걸을 수 있을 만큼 산세가 험하지 않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지 않다. 쉬엄쉬엄 걸으면서 단풍도 보고 하늘도 보자.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밤하늘 은하수가 부럽지 않을 만큼 찬란하다. 계곡 옆으로 넓은 반석이 자리한 식당암(食堂巖)은 이름 그대로 마치 '밥을 먹고 가라'고 자연이 내어준 테이블처럼 느껴진다. 도시락을 싸왔다면 이곳에서 먹고 가자. 널찍한 바위 위에 앉아 가을 산세를 바라보며 먹는 밥맛은 꿀맛, 그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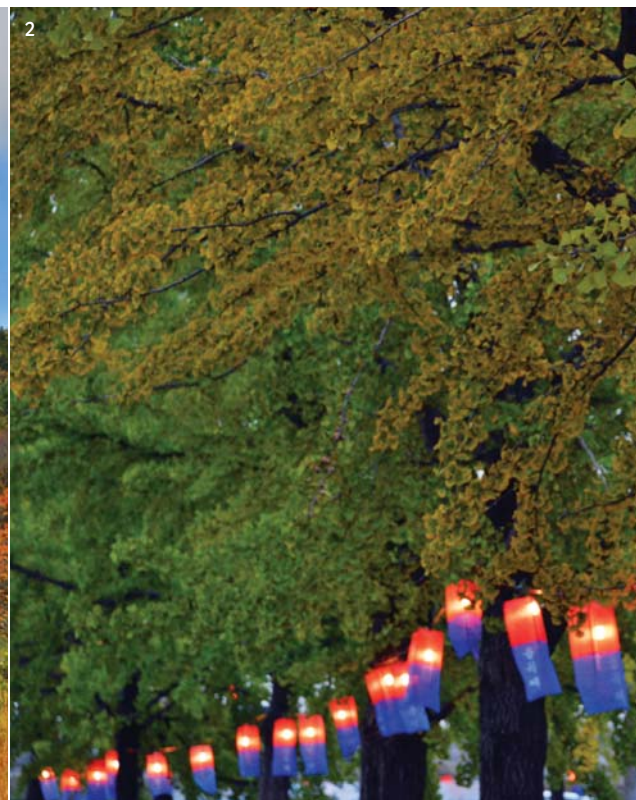
가을에는 웃고 넘는 대관령



강릉 동쪽 끝에 소금강이 있다면 서쪽 끝에는 대관령이 있다. 이제는 터널이 뚫리고 도로가 난 덕분에 굳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에 오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대관령 행이라면 굳이 힘들 일이 없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강릉 내 트래킹 코스인 바우길의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대관령을 찾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올라야 하지만 산 전체를 울긋불긋 물들인 단풍이 시종 눈을 즐겁게 한다. 이왕 대관령까지 올랐다면 마음먹고 바우길 1코스인 선자령 풍차길이나 바우길 2코스인 대관령 옛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다. 가을과 겨울에는 선자령 풍차길이 특히 아름다운데 이미 정상에서 시작해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이라 4~5시간 정도의 시간 여유만 된다면 충분히 힘들지 않고 상쾌하게 걸을 수 있다. 단풍나무는 물론 하늘로 쪽쪽 뿜는 자작나무와 고산지에서만 자라는 귀한 야생화까지 자연이 선사하는 멋진 풍경에 눈이 호강한다. 넓은 능선 자락에 자리한 풍력발전기 또한 그림 같은 풍경의 감초 역할을 한다.

대관령 자락에는 강릉의 커피브랜드 ‘커피커피’에서 운영하는 커피 박물관도 있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26년산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다. 기후적 영향 탓에 커피 산지가 될 수 없는 강릉이지만 상징적으로나마 정성을 들여 키워낸 ‘강릉산 커피나무’를 보면 마음이 뿌듯해진다. 박물관에서는 로스팅에서 분쇄, 추출까지 커피를 만드는 체험을 해볼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커피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도 둘러보고 그 옆에 자리한 카페에 앉아 커피도 한 잔 마시자. 대관령에서 마시는 커피는 꼭 장소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맛이다.

1 그림 같은 풍경의 감초 역할을 하는 선자령 풍력발전기 2 오죽헌 진입로를 메우는 은행나무들 3 완연한 가을 경치가 아늑하게 느껴지는 오죽헌



그리고 농치면 아쉬운 강릉의 가을



경주에서 불국사를 보지 않는다면 제주도에서 성산일출봉을 보지 않는다면 어쩐지 아쉬움이 남는다. 강릉으로 보자면 아마도 오죽헌과 경포대가 꼽힐 것이다. 강릉하면 떠오르는 곳들이라 오히려 너무 '뻔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들 명소 또한 가을에는 더욱 고색창연하다. 오죽헌 진입로를 노랗게 배우는 은행나무들과 경포대와 경포호 둘레를 붉게 물들이는 단풍은 다른 계절에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경포호에서 지척인 허난설헌 생가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늘 같은 풍경인 듯하지만 막상 안길로 들어서면 완전한 가을 경치가 아늑하게 펼쳐진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스물일곱 해 짧은 생을 살다 간 시인 허난설헌의 자취를 따라 가다보면 마음에는 평안이 깃든다. 오죽헌과 멀지 않은 강릉 시내에서 가을을 느낄 만한 곳은 커다란 은행나무가 수호신처럼 자리하고 있는 강릉향교,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커피체험 카페인 명주사랑채 등이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문진 해변 인근의 호수 '향호' 역시 10월이면 하얗게 피어나는 갈대 군락으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다. 번잡함 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향호 둘레길을 돌아보자. 후회 없는 산책이 될 것이다. 떠올려보라, 당신 눈앞에 펼쳐진 청아한 강릉향 수평선을, 풀이 눕는 바람의 대관령을. 



3

<놓칠 수 없는 강릉의 맛!>



깔끔한 맛이 일품인 동치미 막국수

조미료 맛 없이 깔끔한 동치미 막국수는 강릉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이다. 주로 여름철에 많이 먹지만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동치미 국물은 여름에만 먹기에는 아깝다. 강릉 주민들도 추천하는 막국수는 강릉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다.



쫄깃쫄깃, 주문진 오징어

강릉 주문진에는 매년 오징어 축제가 열릴 정도로 오징어가 유명하다. 싱싱한 오징어회는 물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말린 오징어, 오징어의 변신은 무제한! 오징어 빵까지 만날 수 있다.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인 오징어를 강릉 주문진에서 만나보자.



바닷물로 만드는 초당두부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부친 허업이 처음 만들었다는 초당두부! 초당두부는 간수 대신 동해 바닷물로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강릉 초당마을에는 아직도 전통방식으로 두부를 만드는 곳이 20여 곳 정도 있다. 갓 만든 두부를 맛보고 싶다면 강릉 초당마을로 가보자.

서로의 열정을 지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아산생산관리팀 조립4반

열정은 기회를 발견하고 에너지는 그것을 활용한다.

- 헨리 호스킨스

열정은 모든 위대한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

열정 있는 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원동력 삼아 더 큰 발전과 결실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 서로의 열정을 지피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산생산관리팀 조립4반이 있다.



패기 넘치는 열정꾼들을 만나다

조립4반은 신설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생 조립반이지만 열정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놀 때는 더 확실하게 논다는 조립4반은 총 57명의 구성원이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조립4반이 현재 맡고 있는 UM(쏘렌토), TA(모닝) 생산라인은 원래 협력업체가 담당했다. 하지만 납기일 지연, 생산성 하락 등 여러 문제가 속출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작년 7월 '조립4반'이라는 정규반이 편성된 것이다.

정규반으로 편성된 초창기에는 생산라인을 처음 접해보는 신입 사원들이 많아 공정진행에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특유의 젊음 패기와 긍정에너지로 뭉친 이들 조립4반은 현재 아산성우하이텍 내에서는 물론, 고객사에서도 인정받는 월등한 생산량을 자랑하고, 품질 또한 개선됐다는 평이다.

역사는 짧지만, 단단한 시간들

조립4반의 역사는 짧지만 반원들의 관계는 어떤 팀보다 단단하다. 그 중심에는 맹서영 반장이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맹서영 반장이 빠먹지 않는 것이 바로 반원들과의 1:1 면담시간이다.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거리나 애로사항들도 항상 체크하고 있다. 맹서영 반장은 반원들에게 '즐거자'는 말을 수시로 하곤 한다. 즐기면서 하는 일에는 웃음이 따르고, 웃으면서 하는 일에는 없던 힘도 절로 생긴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사실 동료들의 웃는 얼굴은 서로에게 힘을 보태 준다. 이러한 마음나누기는 팀워크를 자랑하는 운동경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5월 열린 제11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 대회에서 조립4반은 족구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내 대회에서 생산라인이 우승한 것은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어 6월에는 제8회 고용노동부장관배 족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고, 잇따라 아산시배 족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립4반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단단한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기술은 최고를 향한다

현재 조립4반은 아산공장 물량의 15%를 처리하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 라인을 포함해 총 3개 라인을 맡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TA(모닝)와 UM(쏘렌토)의 FENDER와 MEMBER로, 예전에는 따로 납품됐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완제품으로 조립돼 'FENDER MEMBER COMPLETE'로 납품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치백 차량의 TAIL GATE 등을 생산하고 있다.

모든 생산라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 여타의 자동차 차체 부품 회사는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합해 20시간인 것에 비해 조립4반은 1시간을 단축한 19시간 근무 체제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꾸준한 생산성 개선의 결과이지만, 그야말로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호흡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에 맞추어 많은 생산라인을 책임지면서도 조립4반은 지금까지 무사고를 자랑한다. 앞으로도 다치는 반원 없이 모두 함께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과 운동,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다. 서로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맹서영 반장과 조립4반 반원들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든 선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니 정답도 오답도 없다. 어떤 선택지를 택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여기에는 '성우하이텍 캠퍼스 슈퍼패스'라는 선택지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명심해야 한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우하이텍의 캠퍼스 슈퍼패스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성우하이텍에서는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14 하반기 공개채용'에 따른 서류전형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캠퍼스 리쿠르팅도 함께 진행되었다. 평소 성우하이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성우하이텍 캠퍼스 리쿠르팅 현장.

성우하이텍 캠퍼스 리쿠르팅의 채용설명회를 통해 성우하이텍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입사지원 TIP, Q&A시간 등을 마련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절차, 인사 제도, 복지와 관련한 다방면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다. 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 궁금증 해소와 성우하이텍에 관한 상세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대리급 이상 직원을 배치해 1:1 직무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상담 담당 직원 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1 채용 TIP을 듣고 있는 학생들
2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개별 1:1 직무상담프로그램 3 슈퍼패스를 받아든 합격자들



★★ 스펙? 비켜!

이번 하반기 공개채용 캠퍼스 리쿠르팅에서는 채용설명회, 직무상담프로그램과 더불어 '성우하이텍 캠퍼스 슈퍼패스 제도 (Sungwoo Campus Super pass System, 이하 SCS)'를 도입해 입사지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SCS는 현장에서 서류전형 통과 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성우하이텍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스펙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SCS에 참가하고 싶으면 우선 채용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SCS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서에는 그 어떠한 스펙 기재란도 없다. SCS에 참가하고 싶은 지원자라면 학교는 물론 지역에 상관없이 리쿠르팅이 진행되는 학교에 가서 SCS 지원서를 작성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그야말로 스펙을 초월한 제도이다.

★★★ 슈퍼패스는 내 손 안에

슈퍼패스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며 'SCS 지원서'를 작성하는 지원자들이 눈에 띄었다. SCS에 참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SCS 미션'은 접수 순번에 따라 지원하는 직무와 그에 따른 본인의 직무 적합성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방식은 발표자의 자율에 맡겨진다. 지원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이 지원 직무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내려진다. 주어진 시간은 5분. 그 5분이 지나면 즉석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슈퍼패스를 지급한다. 지원자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보여줘야 하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준비한 것을 잘 풀어내고, 심사위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는 오직 자신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SCS 평가가 시작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별안간 "와악!"하는 소리와 함께 슈퍼패스를 받아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속출했다. 슈퍼패스를 받아든 한 참가자는 "성우하이텍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슈퍼패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어학성적이나 다른 스펙을 강조하는 서류전형으로 빛을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해서 꼭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성우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통하라, 그저 되지 않는다. 공감하라!

직장인에게 묻는다. 사내 소통이 원활한가? 이 질문에 60%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304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소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성우하이텍은 전자적 서비스를 거쳐 올해의 교육 키워드를 '소통'으로 정했다.

세대 간, 직급 간,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목표이다.

하반기에 진행된 공감소통교육과 승진자교육의 커리큘럼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1 2 공감소통교육 성격유형진단 프로그램 3 공감소통교육 창의, 소통, 협력이 필요한 볼큐브 만들기 4 공감소통교육 불통을 해결하는 속 시원한 도미노 한판! 5 승진자교육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UN기념공원 참배 6 승진자교육 글로벌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테이블매너 교육

• 소통의 발견! - 공감소통교육

5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16차수로 진행된 공감소통교육의 프로그램은 1차수 당 2박3일 동안 이루어졌다. 1일차는 팀을 이루어 역할을 분담하고 스피드 퀴즈, 이구동성 게임 등을 진행하며 소통을 위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이해해보는 시간이었다. 2일차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특성을 통해 소통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우선 자신의 성격유형을 진단한 후, 유형별로 어떤 소통을 선호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제 업무에서도 동료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해보고 그 유형에 맞는 소통법을 택해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이후에는 창의, 소통, 협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볼큐브(Ball-Cube)를 제작하는 체험교육을 받았다. 가장 활동적이었고, 참여도도 높았다. 팀원들은 관찰, 디자인, 설계, 조립으로 업무 포지션을 분담하고, 미션을 수행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이내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 미션 수행 후 각 팀의 볼큐브를 모두 연결하고 최종 도미노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교육 참가자들은 소통의 부재가 조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현명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3일차에는 '자신의 소통'을 스스로 통찰해 보았다. 팀별로 사내외에서 소통을 막고 있는 것과, 소통을 연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 했다. 소통 장애물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여기에서 소통과 불통의 키워드를 골라 스토리텔링을 동원하여 좀 더 명확하게 불통의 원인에 대해 인식해 보기도 했다.

이렇게 공감소통교육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참가자들은 회사 내에서 소통가교가 될 준비를 마쳤다.

• 리더는 준비하며 만들어지는 것이다! - 승진자 교육

2014 인사발령으로 승진한 과장, 차장, 부장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양일간 승진자교육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고 성과를 올리며 팀을 이끌만한 역량과 자질을 키워온 승진자들은 코칭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학습했다. 코칭리더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이 기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경청(Active Listening)이다.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까지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다. 이러한 코칭스킬을 바탕으로 공감소통 퀴즈를 진행했다. 팀별로 함께 퀴즈를 풀어보며 최근 이슈가 되는 세대, 직급, 부서 간 소통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보는 시간이었다. 또한, GWP(Great Work Place)를 만들기 위해 감사와 행복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감사카드에 팀원들의 장점을 기록하고, 고마웠던 일을 적어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육에 참가한 승진자들은 이번 교육으로 얻은 코칭스킬을 실제 업무에 사용해 소통형 리더가 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은 '열린 소통'에서 찾을 수 있다. 열린 소통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감'의 자세를 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완성된다. 지금 당장 막힘없는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내 교육을 통해 느꼈던 '변화를 위한 다짐'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통하는 것'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SUNGWOO HITECH s.r.o.

글로벌 최강, 성우하이텍 체코법인





SUNGWOO HITECH IN OSTRAVA, CZECH REPUBLIC

Dreaming... At the beginning there was a man dreaming. Dreaming of a company that is like a family. A family the branches of which will reach as far as the very heart of Europe. Imagine, some dreams do come true! Imagine, our SUNGWOO family has grown indeed as far as to the Czech Republic, its north-eastern corner close to Poland and Slovakia, the city of OSTRAVA.

SUNGWOO HITECH CZECH has had a history of 9 years now, with its 2,000 employees is one of the largest employers in the region with almost the largest volume of investments supplying almost flawlessly our clients KIA MOTORS MANUFACTURING in Slovakia (starting 2006), as well as HYUNDAI MOTORS MANUFACTURING in the Czech Republic (starting 2008).

Sungwoo Hitech s.r.o. team does not experience together only working issues. In the course of the year we get a chance to meet at the number of more or less formal events which take place in our company as well as outside.

ASSESSMENT OF A YEAR AND AWARD OF THE BEST EMPLOYEES

The company year we always open together with a speech of president Mr. G. S. Shim, assessment of the past year and at the same time announcement of the Best Employees. Employees are, across the whole company, assessed in three categories (Candidate for the worker, The best worker and The worker of the year).

Apart from material prizes and floral thank-you for women get the Best workers very unique opportunity to visit, for us Czech still so exotic, country of South Korea. Part of this educational journey, which includes a visit in many different places of the country, is also very rich accompanying program. Participants of the journey get to know varied sides of traditional along with modern south-korean life, from a visit of museums, exceptional parks, gardens, modern buildings, exhibitions of taekwondo, through culinary experiences and a stay in Buddhist monastery. On the top of all, and one of the most popular, is an involvement of our team in a running race in Busan.





1 SUNGWO HITECH s.r.o.(체코성우 공장 전경) 2 Marathon in Busan (KNN환경 마라톤 참가) 3 Celebration of 9th anniversary (체코성우 9주년 기념) 4 Chuseok event (추석행사)

KOREAN HOLIDAYS SOLLAL AND CHUSEOK IN OSTRAVA

Within the multicultural recognition together we celebrate the most important holidays. This year we have met at celebration of New Year and Thanksgiving day. We got a chance to taste traditional Korean food and meet with our partners and families.

SPONSORS AND CHARITY PROJECTS

Important strategy of SUNGWO HITECH branch in the Czech Republic is not only to hold the part of significant business and prestige partner, but at the same time a role of fair and problem-free neighbor to close as well as to more distant citizens of Ostrava and certainly required employer in our region. The company significantly supports series of varied projects from different fields as cultural, social and sports life. The company is also involved in rescuing of historical heritage of this region and provides a help within charity activities.

To the most important cultural events belongs surely our annual

support of popular festival Czech-Korean Days which is designed for broad public of Ostrava. Tournaments for a Korean ambassador cup in a traditional board game GO in Prague, musical event Ostrava days of new music or for example support of Janáček philharmonic tour in South Korea. We also participated in rescuing of historical sight-unique wooden church.

From sports project should be mentioned a support of sledge hockey team in World Championship in sledge hockey in 2009 or a long term support of GO club and a children's Taekwon do club WTF in neighboring city of Frýdek - Místek.

In a field of education we cooperate with a community Hrabová, especially with a primary school, where we have been contributing valuable prices not only for a ceremonial party but for different sports children and family tournament, but we have also built a modern computer classroom for students of this school. Last but not least we are very proud of cooperation of our employees with a Blood centrum Faculty hospital Ostrava. Register FN Ostrava has 13,500 complimentary and voluntary donors and heroes at the moment. Indispensable heroes, because illnesses, which request a treatment with a healing

jigs made of human plasma and blood, unfortunately increase. Company SUNGWOO HITECH s.r.o. can be proud of a high number of heroes, in a present day we have 235 heroes! In their responsible attitude we support them and we are very happy to free them for their next blood or plasma collection. For more information you can follow www.swhitech.cz.

유럽의 중심, 체코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우의 열정

꿈...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과도 같은 회사를 가슴에 품고, 유럽의 심장 한 가운데에 이를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우리 성우가족은 마침내 체코에 이르러 실로 그 꿈을 이루었다.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맞닿은 체코의 북동쪽에 자리잡은 산업도시, 오스트라바가 바로 희망찬 성우가족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체코법인은 올해 9년째로 접어들었으며, 약 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오스트라바의 최대 규모 법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출발한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법인과 2008년부터 시작한 현대자동차 체코법인의 협력업체 중 최대 규모의 투자액을 유치하여 설립되었다.

체코법인에서는 업무적인 소통과 회의 외에도 전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속감 증진과 화합 그리고 단결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평가 및 베스트 직원상 수여

회사는 항상 전 직원에게 열려 있다. 모든 직원은 전년도 업무 평가와 동시에 베스트 직원상 발표에 대해서 심규수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직원들은 모든 현장과 부서를 통틀어 올해의 직원상 후보, 베스트 직원상, 올해의 직원상 등 세 개의 범주에서 평가 받는다. 베스트 직원상 수여자에게는 수상 상금 및 화환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체코인에게는 특히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명소 방문 등 다소 교육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된다. 박물관, 공원, 정원, 현대식 건물, 태권도 박람회, 음식 문화와 템플스테이 등을 경험하며 다방면으로 현대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부산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가 꼽힌다.

오스트라바에서 정겹게 나누는 한국의 명절

체코법인에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코인 직원들이 한국 명절 행사에 함께 참여한다. 체코인 직원들에게는 전통 한국 음식을 접하고 주재원 가족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올해에도 국경 없는 글로벌 성우가족들은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로 단합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분야를 통한 후원과 자선 프로젝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우의 기업문화, 체코법인이 유럽에서 이어갑니다.”

체코법인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은 영향력 있는 사업 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기업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우하이텍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봉사와 자원 활동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다. 이곳 오스트라바에서도 최강 성우인의 사명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분야를 통하여 적극적인 후원과 자선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체코법인이 위치한 오스트라바 지역의 역사 유적 구조 활동에 일조하고 있으며, 자선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오스트라바시에서 개최하는 인기 있는 음악 축제 'Czech Korean Days'와 'Ostrava days of new music'을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야나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또한 후원하고 있다.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에도 성우의 손길이 닿고 있다. 2009년 체코에서 열린 월드컵피언 아이스 슬레지 하키팀을 후원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바둑 클럽과 어린이 태권도 교실을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체코법인이 위치한 인근 초등학교 기념 행사, 다양한 스포츠 경기 등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라바에는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 1만 3,500명의 의료 자원봉사자 및 기부자들이 있다. 점차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웅 같은 존재이다. 현재 체코법인에는 이와 같은 235명의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하는 성우하이텍의 우수한 기업문화를 유럽에서 이어가는 그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Here & There



오스트라바에 가다

HEART OF EUROPE, CZECH REPUBLIC, THE CITY OF OSTRAVA





1 Beskydy Mountain (Beskydy 산) 2 Mine Michal (Michal 광산)
3 Cathedral of the Divine Saviour (Divine Saviour 성당)

역사 속의 오스트라바

이곳 오스트라바의 명칭은 체코의 모라비아 지역과 실레시아 지역을 나누는 강의 이름 '오스트라비체(Ostravice)'로부터 붙여진 것이다. 말의 근원은 '날카로운(Ostrý)'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이는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흐르는 강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도시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 이곳에 인간이 정착한 시기는 석기 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약 2만 5천년 전 매머드 사냥꾼들이 주변 고지대에서 야영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53년 작은 조각상이 발견되었는데 '페트르코비체(Petrkovice) 비너스'라 불리며 여성의 형상을 띄고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선사 시대의 사냥꾼들이 석탄층의 노출된 부분을 연료처럼 사용했을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것은 과거 흑탄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발견한 사례가 되었다. 과거 8세기, 슬라브족의 영향력을 갖춘 한 세력은 해당 지대를 자신들의 요새로 삼았으며 이는 현재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훗날 13세기 중반, 체코 역사 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기도 했던 프제미슬 오타카르 왕이 이곳에 석조성을 세운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철'의 심장, 오스트라바

1945년 이후 50년대를 거치며 체코슬로바키아는 채광, 철강 등 중공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다. 오스트라바는 이른바 '석탄과 철

HISTORICAL OSTRAVA

Ostrava got its name from the river Ostravice, which divides the town into its Moravian and Silesian parts. The root of the word Ostrava, "ostrý", means "sharply, quickly, swiftly flowing river". The first evidence of human settlement in the region on which today's city lies goes back to the Stone Age. Approximately 25,000 years ago, mammoth hunters had an encampment at the top of Landek Hill, which has been evidenced by numerous archaeological finds. The most significant discovery was a 48mm high figurine of a woman's torso made from hematite found in 1953, called the Petrkovice (or Landek) Venus. Archaeologists have found evidence that prehistoric hunters used coal from exposed seams on the surface as fuel. It is the first evidence of the use of black coal in the world. In the 8th century, one of the numerous hill forts of the Slavic Holasic tribe was built on the legendary Landek Hill. The stone castle of Czech King Přemysl Otakar II was built here sometime in the middle of the 13th century.

INDUSTRIAL OSTRAVA

After 1945 and through the 1950s, Czechoslovakia concentrated on the development of mining, the steel industry and other areas of heavy industry. Ostrava



1 Vitkovice steel (Vítkovice 제철소)
2 Colour of Ostrava (오스트라바 문화축제)

강의 도시', '국가의 강철 심장'이라 불리는 시절을 맞으며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1949년, 오스트라바 내에 산업 복합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공업에 막대한 지지와 투자 정책을 실시하자, 오스트라바와 그 주변으로 새로운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한편, 오늘날 오스트라바는 특히 자동차와 IT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 활동이 활발하여 현대 유럽의 구성 방식에 맞는 온전한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베스키디 지역과 예세니끼 산

모라비아-실레시아 주에 속하는 베스키디 지역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경계인 체코의 가장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카르파티아 산맥으로부터 뻗어 나와 산맥의 서부에 형성된 언덕들 중에 가장 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최고 지점은 일명 '대머리 산'(해발고도 1,323m)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 밖에도 해발고도 1,200m가 넘는 여러 지점들이 명소로 꼽히고 있다. 1973년 이곳은 서식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체코에서 가장 큰 서식 보호 구역으로 거듭났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와 휴식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베스키디의 근사한 풍경에 매료된다. 또한 자연,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관광 명소들까지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스키를 즐기는 곳도 마련되었다. 겨울에 리프트를 타면 초보자를 위한 비탈길이나 또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다양한 코스의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산등성이에서 내려갈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산악 자전거뿐만 아니라 산책, 사이클링 그리고 경마에 관심이 있는 이들 또한 이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다. 베스키디에는 수자원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수영, 아쿠아 스포츠, 그리고 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became its centre, becoming that period's "city of coal and iron" and also the "steel heart of the republic". In 1949, construction was started on the vast Nová Huť industrial complex in Ostrava-Kunčice. Massive support of heavy industry meant an inflow of new workers to Ostrava and its vicinity. Nowadays Ostrava is a city of modern european format with many international investments, especially in automotive and IT industries. More www.ostrava.cz.

BESKYDY AND JESENÍKY MOUNTAINS

The Moravian-Silesian Beskydy region lies in the easternmost portion of the Czech Republic on the borders with Slovakia and Poland. They form the largest foothills of the western Carpathian Mountains in the Czech Republic. The highest point is Lysá hora (Bare Mountain) at 1,323m above sea level. Other important peaks include Radhošť (1,129m), Kněhyně (1,257m), Smrk (1,276m) and Travný (1,203m). In 1973 the Moravian-Silesian Beskydy were declared a protected habitat and make up the largest protected habitat in the Czech Republic. The wonderful scenery of the Beskydy beckons people to engage in all kinds of sports activities and pleasurable relaxation. The Beskydy have lots of natural, cultural and historical attractions. Skiing in the Beskydy goes back many years. In wintertime ski lifts bring you up to the slopes for a bit of downhill skiing, up to the ridges where you can try some cross-country skiing or else hiking on many diversified trails. Enthusiasts for walking, cycling and horseback riding, as well as paragliders and mountain bikers, also come here to enjoy themselves. The Beskydy also has abundant water resources for swimming, water sports and fishing.🌈



신뢰와 화합의 기업문화로 내일을 향해 달린다

건강한 노사관계로 이루어온 성우의 역사

Running towards Tomorrow with Corporate Culture of Trust and Harmony,
The History of SUNGWO HITECH which has created a great company of
today through its healthy labor-management relations

성우하이텍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치른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17년이면 창립 40주년이 된다. 흐르는 시간을 일컬어 마치 화살을 떠난 시위와 같지만, 사람이 쏘내려가는 역사라면 사람의 의지 없이 저절로 흐르는 시간이 어디 있으랴. 그동안 성우하이텍은 괄목할 만한 성과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단연 '노사화합'에 방점이 찍힌다. 성우하이텍의 역사 역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온 사람의 역사인 것이다.

Just as a few days ago, we held a ceremony marking 30th year of foundation of SUNGWO HITECH, and by 2017, it will be 40 years old already since SUNGWO HITECH was founded. There is a saying that time flows like an arrow from a bow, but if a history were written by a person, there wouldn't be time that flows by itself without a person's will. All this while, SUNGWO HITECH has achieved noticeable outcome and phenomenal development. Then where is the secret for such growth? Definitely, the emphasis would be on '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other words, the story of SUNGWO HITECH is also a story made by people-SUNGWO members together.

회사와 임직원의 신뢰 속에 노조가 설립되다

지난 1977년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소규모 업체로 출발했던 성우금속공업사. 임직원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초기 역사를 써내려갔다. 돌이켜보면 회사 설립 초기 유난히 많았던 야유회는 임직원들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회사와 직원들의 믿음 속에서 성우하이텍 노조가 설립된 것은 지난 1988년 7월이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정점을 향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88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타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지만, 성우하이텍에는 그 같은 노사 갈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성우인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끈끈한 연대의식이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듬해인 1989년, 기장군 정관면 정관농공단지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며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리스크 부담을 안은 큰 모험이었지만 노사 안정이 뒷받침 되었기에 이러한 도전도 가능했다.

The Labor Union was established in Trust among the company and employees

In 1977, all employees at SUNGWOO Metal Industrial, starting as a small-scale business at Jwacheon-dong, Dong-gu, Busan, began to write down its initial history with the concept that employees are all ‘One Family’. Retrospectively, in the early period of the company’s foundation, unusually frequent picnics became a precious time. Time when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sympathized with each other’s position and circumstances.

The labor union of SUNGWOO HITECH was established in July, 1988 in the faith of the company and employees. At that time, throughout the society in general, aspirations for democratization were aiming at the summit, by the time when The Worldwide Sports Festival-‘88 Seoul Olympics’ was held. On the strength of such a social atmosphere, th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got worse in most of business places in contrast, at that moment, there never existed such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SUNGWOO. It’s becaus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like ‘We are a family’ already took root firmly in the mind of all SUNGWOO members.

In the following year(1989), as SUNGWOO relocated to a new factory at Jeonggwan Agriculture Industrial Complex, Jeonggwan-myeon, Gijang-gun, it made a large scale investment. It was a big adventure with the heavy burden of risk, but labor-management stability was a big support, making such a challenge feasible.

1988년 성우금속 당시 야유회(1988, SUNGWOO METAL Company picnic)



직접 공장 화장실 청소를 하며 솔선하는 이명근 회장
(Chairman Mr. M.K. Lee lead in coping by cleaning rest rooms in the factory)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인한 걸프전이 발발했다.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다. 매출이 줄고 자금회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명근 회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 청소용역업체를 정리하고 임원들과 함께 직접 공장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으로 위기극복 대처 의지를 솔선했다.

1995년에는 직원 정년을 60세까지 늘렸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힘썼다.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IMF 구제금융)가 불어 닥쳤다.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성우하이텍 역시 이러한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단 한 명의 인원감축도 하지 않았다. 고통분담이라는 과감한 결단 앞에 노조는 상여금 200% 반납, 임단협 무교섭 타결 등으로 회사에 화답했다.

2000년 5월에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했다. 직원들에게 성우하이텍 사주를 배분해 경영 참여를 통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노력은 2001년 4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노동부)'으로 이어졌고, 2006년에는 노동부와 한국노동교육원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Even much stronger after the Crisis

However, crisis broke out unexpectedly. In August, 1990, The Gulf war broke out due to Iraq's plundering of Kuwait. Domestic companies were also influenced. Sales decreased and problems arose in cash flow. Chairman Mr. M.K. Lee liquidated a janitorial service company in order to cut cost and took drastic measures for coping with the crisis together with directors, such as elimination of restrooms and cleaning contractors in the factory.

In 1995, the company extended employees' age limit to 60, and strove for employees' job stability through re-employment of retired persons. However, in lat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IMF bail-out program) struck Korea. From this moment, domestic companies set forth powerful restructuring. SUNGWOO HITECH wasn't able to avoid such crisis, either. Nevertheless, the company fired none of the company employees. To the drastic determination of pain-sharing, the labor union warmly responded with the return of 200% bonus to the company and implementation of no wage/group negotiation.

In May, 2000, the company organized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The company was intending to boost ownership spirit of employee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by allocating SUNGWOO HITECH shares to them. Such an effort led to 'Selection of Excellent Enterprise for New Labor-Management Culture (Ministry of Labor) in April, 2001, and in 2006, SUNGWOO was selected as 'Excellent Place of Business with Labor-Management Relations'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Korea Labor Education Institute.

2007년 노사한마음 결의대회 (2007, The Labor-Management One Mind Resolution Meeting)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회사”

2007년 6월, 성우하이텍은 ‘2007년 노사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사화합의 미래를 새로이 열었다. 노조는 다가올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고 세계 속의 자동차 차체 부품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동참하자는 중지를 모아 자발적 임금동결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회사에 전했다. 이명근 회장은 사재(연간 10억씩 총 100억 원)를 출연해 ‘성우가족 복지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일 사장은 임직원 경조사에 빠짐없이 찾아다니는 등 기쁨과 슬픔을 직원들과 함께 했다. 현장 공정책임자의 직제개편 및 능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책임감 고취와 함께 직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도 마련했다. 현장 공정책임자의 직급을 6단계로 세분화해 명찰에 반장, 조장, 기장, 기사 등의 직함을 쓰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기업문화는 이 해 ‘노사화합 대기업부문 우수기업 선정’으로 이어졌다.

장기화되는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 노조는 2009년 또 한 번의 자발적 임금동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 성우하이텍이 세계적 경제위기 등 거친 외풍에도 흔들림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조의 이러한 결단과 이해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Our Company where employees love and care for each other”

In July, 2007, SUNGWOO HITECH held ‘The 2007 Labor-Management One Mind Resolution Meeting’ and opened the future of ‘labor-management harmony’. The labor union delivered their difficult resolution of spontaneous wage freeze by gathering wisdom from employees that they should make preparation for the coming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and participate in securing competitiveness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company to stand out as car body part company in the world. Chairman Mr. M.K. Lee returned his thankful mind to employees by establishing ‘SUNGWOO Family Welfare Society’ by donating his private property(10 billion won in total by 100 million won per year). On top of that, president KIM TAE IL, who was appointed as the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shared sorrows and joys with employees by visiting employees’ condolences and congratulations without missing any.

The company inspired employees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rranged a system that enhanced every individual employee’s self-esteem. The company subdivided field employees’ position into 6 categories and got them to mark their titles, such as team leader, foreman, and senior technician, etc. on their name tag. In addition, the company introduced reorganization of a person in charge of field process and efficiency pay system. Such a corporate culture led to ‘Selection of Excellent Enterprise in the sector of Large Company Labor-Management Harmony’.

In the midst of extended world economy crisis, the labor union came to make a difficult decision of one more spontaneous wage freeze. It’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labor union’s difficult decision and understanding served as the biggest driving force in leading SUNGWOO into stable growth without wavering even with a rough draft of global economy crisis, etc.

2012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2, Labor-Management Culture Grand Prize Presidential Award)



열린 경영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기업문화 확산

성우하이텍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면서 사업장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FPS(Smart Fool Proof System)를 업무에 도입해 사무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매년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랑스러운 성우인상'을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고 있고, 일률적,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성과 격려금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사업장별 목표에 맞는 평가제도를 통한 '불량 제로 달성 격려금'을 신설하여 목표에 연동되는 합리적인 성과 분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한마음 체육대회', '이웃사랑 나누기 일일호프' 등 노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소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2012년 9월,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이러한 노사화합의 기업문화를 주도해온 데 대한 보상이었다. 여기에 대표이사, 노조위원장, 사업장별 사무직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사노사협의회'를 마련하고 직원들을 위한 '경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경영'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정착 시킴으로써 '2013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제조부문 본상과 팀 성과혁신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성우하이텍 창립 37년. 그간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성우의 역사는 노(勞)와 사(社)가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화합의 노래였다. 임직원 모두가 칸타빌레의 연주자요, 지휘자다. 해외법인들 역시 국내법인과 같이 상생과 협력의 기업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오늘도 성우 임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세계 최강의 자동차 차체 부품 회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키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Spread of Corporate Culture of Communication and Sympathy through Open Management

With SUNGWOO HITECH rebirth as a global enterprise beyond a region, it was confronted with lowering business efficiency due to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between places of business. In order to dissolve this problem, the company constructed a new paradigm of office environment by introducing Smart Fool Proof System which was independently developed by SUNGWOO in 2011. It brought about employees' job satisfaction improvement and growth of production.

Further, 'The Proud Member of Sungwoo Award' was given to the Sungwoo members who were recognized as having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wards cost redu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annually and posts up the relevant person in 'The Hall of Fame', and in a bid to dissolve negative effect of performance pay and incentives paid uniformly and in monolithic way, the company is boosting employees's morale by implementing reasonable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which is interlocked with goals by setting up 'Zero-Defect Achievement Incentive' through the evaluation system that serves to the purpose by workplace. The company is also fully arranging the ground like 'One Mind Sports Competition', 'Neighborly Love Sharing Hope Day', etc. in which labor and management share their mind.

In September, 2012, the company won the 'Labor-Management Culture Grand Prize Presidential Award' which was a reward for taking the lead in corporate culture of labor-management harmony. Additionally, the company arranged 'Company-wide Labor-Management Council' in which CEO, union head, and office job representative by workplace, etc participate, and ultimately the company managed to settle down the culture of smooth communication and sympathy through 'Open Management' such as hosting 'Management Briefing Session' for employees. Such an effort of the company finally came to win '2013 100 Top Companies Good for Work' Main Award in manufacturing Sector and Team Performance Innovation Award.

The 37th Anniversary of SUNGWOO HITECH Foundation. The history of SUNGWOO, which firmly established its status as a global enterprise from a local company representing Busan all this while, was a song of beautiful harmony sung by labor and management.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are all players and also conductors of cantabile. Overseas corporations are also realizing the corporate cultur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Even today as usual, SUNGWOO executives and staff members with one mind are making their utmost effort for taking another leap while defending pride and self-esteem as the world's most powerful car body part company. 🎵

Challenge Sungwoo

제13회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

오색빛깔이 천지를 물들이는 가을의 초입에
접어들자 올해도 어김없이 'EXR과 함께하는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가 성대한 막을 올
렸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서 펼쳐진 부
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는 마라토너라면 한
번쯤 꿈꾸어 보았을 환상적인 코스를 자랑한
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도 즐기면서 땀다. 이
윅고 결승점을 향해 내딛는 건각들의 땀방울
에 바닷바람도 덩달아 흥겹다.

가을로 물들어 가는

바다 뒤편으로 달려라



가을을 달리며 만끽했던 그 기분, 참 좋다!

성우하이텍이 해마다 후원하고 있는 '2014 EXR과 함께하는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가 10월 5일 개최됐다. 1만 5천 300여 명의 국내외 마라토너 가운데, 3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 300여 명도 참가해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가 국제적인 마라톤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인 마라톤 종목인 하프코스는 21.0975km를 달린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출발해 동백섬을 거쳐 다시 광안대교를 따라 부산시립미술관으로 돌아와 피날레를 장식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1천 4백 명의 성우하이텍 직원들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스타 트라이에 모였다. 저마다 5km, 10km, 하프 중 한 코스를 선택해 오랜만에 만나는 동료와 출발선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늠름해 보였다. 곧이어 출발 총성이 울리자 선수들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앞으로 달려 나갔다.



속보!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이수승 과장과 김유리 사원이

직접 취재한 따끈따끈한 인터뷰 기사를 전해왔다.

강영진 차장님의 **알콩달콩** 마라톤 라이프 정리 김유리 (아산인사총무팀·사보기자)

강영진 차장님(아산인사총무팀, 52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2번은 하프, 1번은 풀코스로 꾸준히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목적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95kg에 이르렀는데, 마라톤을 준비하고 참가하면서 현재는 88kg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차장님은 매년 아내와 마라톤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마라톤이라는 같은 취미생활을 하며 함께 달릴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번 마라톤대회는 특별히 인원이 전년보다 배로 많았고, 젊은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다고 대회 분위기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뛰다보면 누구나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이 오는데, 차장님은 그 한계를 '기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자, 마지막 골인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을 반가운 아내의 모습에 커다란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출발이 빠르다고 끝까지 빠른 것도 아니고, 처음에 조금 늦었다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늦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끈기와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인 내입니다. 강영진 차장님은 이번 부산바다하프 마라톤대회의 하프코스를 2시간 21분으로 완주 하셨습니다. 물론, 아내분과 함께 말입니다. 



융복합 창조, 협업에 길이 있다!

제4의 물결, 협업(Collaboration)

예전에 모 대기업에서 제작한 광고가 하나 있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국내 1등 기업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지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광고에 동감하였는데, 그때는 기업과 우리 모두가 최고만을 바라보고 달렸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에 이런 광고를 내보내면 큰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직 최고만을 기억한다면, 2등, 3등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사회적 약자는 누가 보호하란 말이냐!'라며 반발이 있을 것이다. 과거 무한경쟁시대에는 무조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물론 그러한 패러다임 덕분에 우리나라도 큰 발전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과 부의 결과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를 가져왔고, 과거에 비해 몸 고생이 줄어든 대신 마음고생은 수십 배가 늘었다.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아졌다.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에 공감하는 이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분명히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농경사회, 산업사회에 이어 정보화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고 일컬었던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를 통해 제4의 물결에 대한 준비를 역설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제4의 물결, '협업(Collaboration)'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협업진흥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은기 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10여 년간 KBS <생방송 오늘> 등 시사·경제프로그램 전문MC를 맡아왔다.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한다 (2010)' 외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홍조근정훈상(2009), 한국 HRD대상(종합경영대상부분) 등을 수상했다.



글 | 윤은기(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 ● 융복합 창조, 협업의 시대

이미 실감하고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쏟아져 나오는 지식과 정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에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같은 것만 추구하도록 배웠고 다름을 배척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끼리끼리 문화'나 '우리가 남이개!'라는 말의 한편에는 다름을 배척하는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같을 동(同)자를 좋아하는 문화의 이면에는 다름을 배척하고 다름에 의해 입게 될지 모르는 피해나 화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바뀌고, '한 우물만 파던 시대'에서 '융복합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름이 축복이고,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바로 이(異) 길에 답이 있다! 그간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협업을 하면 강자와 약자가 모두 함께 살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으며, 산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협업이다. 상하관계를 상정해왔던 하청업체란 단어도 점차 사라져가고, 협력업체, 협업업체로 바뀌고 있다.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정부3.0'을 통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업행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내로라하는 주요 기업들도 부서 간 협업, 기업 간 협업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융복합 사회에서는 1+1이 아닌,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알파(α)를 창조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 ●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융복합 창조의 사례

실제로 협업을 통한 융복합 창조의 사례는 많은 제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자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로봇완구 '도봇'은 협업으로 성공한 유명한 사례다. 완구 제조업체인 영실업은 기아자동차와 손잡고 변신자동차 로봇인 '도봇'을 출시, 레고를 압도하며 완구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다.

실제 기아자동차 모델을 '도봇'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제품기획, 생산, 마케팅, 관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함

으로써 파트너사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냈다. 특히 제품 생산은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과 함께 했는데, 각각의 영세업체들이 모두 균일한 품질의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협업으로 극복했다. 각 업체들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을 영실업의 ERP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업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들이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 생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구동되는 효과를 얻어냈다.

A사의 벽걸이형 소형세탁기 '미니'는 내부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사례다. 기존의 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서 디자인팀과 기술팀이 함께 1년 넘게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허리를 구부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누군가 '그럼 공중에 세탁기를 매달면 어떨까?'라고 가볍게 던진 말이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 디자인팀만 있었다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말에 대해 기술팀에서 '벽에 매달아 보자'라고 제안했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벽걸이형 세탁기가 만들어졌다. 부서 간 협업이 있었기에 서로 다른 관점과 해결책을 결합한 혁신 제품이 탄생한 것이다.

국내 유수의 자동차 부품 기업 B사는 내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R&D 프로젝트에 협업 프로세스를 장착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사는 당사에 적합한 협업 시스템을 찾기 위하여 작년 말부터 수차례의 협업 시뮬레이션과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제품기획-설계-제작 및 시험-양산 등 R&D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각 부문별 프로젝트 매니저들 간 협업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부문별-단계별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위험요인 혹은 시너지요인을 참여 부서들이 함께 검토함으로써 R&D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참여 부서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전체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협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업무에 협업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 있다.

협업은 창조와 융복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자 신성장동력이다. 또한 협업은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부서, 조직이 잘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출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똑똑한 방법이다. '소통'과 '상생'이라는 협업 기반의 기업문화를 갖춘 성우하이텍의 무한한 발전을 응원한다. 

이런 선물 어때? SPECIAL

때로는 한 마디 말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더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까?’, ‘마음에 들어 할까?’

찬바람과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진다.

매번 똑같이 보내는 새해 인사 단체문자처럼 비슷비슷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태로운 당신의 인간관계에 단비를 내려줄 작은 선물부터
다가오는 연인의 생일, 매년 넘쳐나는 기념일,
심지어 안 친한 선배의 집들이 등 골라야 하는
선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한 당신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선물 고르는 Tip을 소개한다.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받는 순간 광대 승천하는 선물 고르기 Tip

① 잠깐이라도 상대를 관찰하자.

선물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 바로 관찰이다. 상대의
취미생활부터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이
라도 관찰을 해보자. 자세히 볼수록 그 사람과 가까
워지기 마련이다.

②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나에게 필요한 물 건인지 생각해보자.

필요도 없는 처치 곤란인 선물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다. 선물을 주기 전 나에게도 유용한지를 먼저 생
각해보자.

③ 선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으로 준비하자.

선물은 없어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물건이 좋다.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 것들
을 선뜻 상대방에게 건네 보자. 예를 들면 비싼 만년필,
키홀더, 디자인 사무용품 등이 있다.



“부장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Q.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는 비법, 어디 없나요? 찬바람이 쐬 땀 부는 부장님 마음을 사르륵 녹여버릴 따뜻한 선물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정성스러운 선물만큼 감동적인 것이 없다. 직장 상사처럼 가깝지만 먼 그대에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정성스러워 보이는 레몬청 선물을 추천하고 싶다. 레몬청이라니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자. 겨울엔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여름엔 시원하게 먹을 수도 있는 레몬청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유리병에 담아서 리본 하나 묶어주면 까칠한 부장님의 마음도 사르륵 녹일 것이다.

Ⅰ 레몬청 만드는 법 Ⅰ

깨끗하게 씻은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 한다. 밀폐용기에 레몬과 설탕을 5:2 비율로 넣은 다음 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한 뒤, 서늘한 곳에서 며칠 동안 숙성시키면 끝!



“네 것인 듯 네 것 아닌 네 것 같은 나~”

Q. 우리는 썸 타는 관계, 우리 사이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A. 아슬아슬 썸타는 사이라면 서로를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커피 한 잔 어때?' 이런 식상 멘트보다는 평소 그녀(그)가 즐겨 가는 커피 전문점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해보자.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넉넉한 충전 금액은 그녀(그)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통행료(?)라고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찬찬히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FOR YOU

“모든 신입사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Q. 복사하러 입사했는지 복사기 앞을 떠나지 못하는 신입사원!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데 도움이 될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A. 책상 앞에 앉아 있지는 못하고 이 심부름, 저 심부름하기 바쁜 우리 팀 신입사원에게는 상큼한 사무용품이 제격이다. 디자인은 물론 기능까지 업그레이드 된 자동 스테이플러를 선물해보자. 버튼만 눌러면 감쪽한 디자인의 자동 스테이플러가 서류철 작업을 척척 해낼 것이다.



“이번 생일에는 또 어떤 선물을 할까?”

Q. “지난 생일에 내가 뭐 줬더라?”, “내가 뭐 받았더라?” 다가오는 10년 지기 친구의 생일, 매년 챙기는 것 같은데 정작 기억나는 선물은 없어요. 받은 친구도 준 본인도 기억 못하는 선물은 이제 그만! 친구의 생일에 생색 뽐낼 수 있는 선물 뭐 없을까요?

A. 10년 동안 같이 울어주고 웃어준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꼭꼭 눌러 담아 새긴 수제 디자인 도장을 선물해보라. 디자인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서체까지 고를 수 있는 수제 도장은 달지도 않아 오래도록 생색낼 수 있는 선물로 제격이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조카, 자녀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수제 도장을 추천한다.



어스름 내리는 안개의 시간에 잠기다

추리소설가 김성중

달맞이언덕을 들어서자 어느새 열은 먹빛 안개가 주위를 감싼다. 어스름 속에 마주한 추리문학관. 김성중 선생의 집필실은 4층이다. 나선형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다룬 선생의 소설이 떠오른 탓일까, 묘한 긴장감을 느낀다.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진 속 설록홈즈가 객을 먼저 맞이한다. 문을 슬며시 밀어보았다. 여기저기 공간이라는 공간은 온통 커져서 쌓인 책으로 가득하다. 한쪽 벽면 전체로 탁 트인 통유리 너머엔 안개 낀 바다. 그 바다와 안개를 배경으로 한국 추리소설의 대가이자 산 역사인 김성중 선생이 희미하게 앉아있다. 인기척을 내자 마치 소설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온 듯, 반갑게 일행을 맞는다.

글 | 객소록 사진 | 박수정

추리문학의 산 역사가 되다

널찍한 책상에는 책뿐만 아니라 80년대 시사잡지에서 오늘자 일간지까지 뽁뽁하다. 그 속의 어떤 활자가 소설의 소재가 될지 모른다. 선생 앞에 놓인 창작노트에는 이렇게 발견한 소재나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조그만 토막기사도 좋은 소재를 제공해주지요. 이 기사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의 실직으로 온 가족이 흩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34세 미사가 공원에서 노숙하다 역시 노숙자인 53세의 헬무트를 만난다. 둘은 어느 날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부자간임을 알게 됐고 함께 노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기막힌 사연이 소설의 아이디어가 되어주지요.” 기사 스크랩을 읽어주는 대소설가의 모습이 진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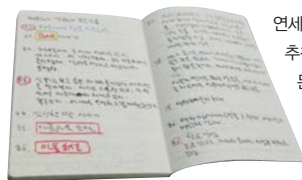
김성중 선생은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1974년에는 추리적 기법을 이용한 전쟁소설 ‘최후의 증인’이 한국일보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한국일보에서는 ‘최후의 증인’을 신문에 연재했는데, 당시에는 이 소설을 읽기 위해 신문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후 이 작품은 세 차례에 걸쳐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프랑스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80년대 초에는 3년 연속으로 부산일보에 ‘안개 속에 지다’, ‘백색인간’, ‘미로의 저쪽’을 연재했으며, 1986년에는 추리문학대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추리문학계에 큰 획을 긋는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한마디로 1970~90년대는 선생의 시대였다. 그 당시 ‘추리소설=김성중’이라는





김성중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1969년 조선일보사 신춘문에 공모에 단편소설 〈경찰관〉이 당선, 현대문학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었으며, 일간스포츠신문에 장편 대하소설 〈여명의 눈동자〉를 연재하여 대하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부랑의 강〉, 〈백색 인간〉(2권), 〈제5의 사나이〉(3권), 〈한국 국민에게 고함〉(3권), 〈피아노 살인〉, 〈국제열차 살인사건〉(3권), 〈형사 오병호〉, 〈슬픈살인〉(4권), 〈코리아 X파일〉(2권), 〈미로의 저쪽〉(2권), 〈안개 속에 지다〉(2권), 〈세 얼굴을 가진 사나이〉(2권) 등 총 40여 종의 작품에 무려 100여 권의 책을 발표했다. 1992년 부산 달맞이언덕에 세계 최초의 추리문학관을 개관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창작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김성중 선생의 창작노트

등식이 불변의 법칙처럼 독자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았다. 현재 선생은 부산일보에 연작 단편소설 ‘해운대, 태양과 모래’를 연재하고 있다. 부산일보와는 30년만의 해후인 셈이다. ‘해운대, 태양과 모래’는 상반기에 연재한 ‘달맞이언덕의 안개’에 이어 해운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 연작 소설이다. 장편 연재라는 신문 소설의 틀을 깨고 한 작가가 매주 한 편씩 완결된 단편소설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내공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 노장의 창작 열정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바다와 안개의 도시 부산에 빠지다

김성종 선생은 부산과 인연이 깊다. 그의 대표작으로 90년대에 채시라, 최재성, 박상원 주연의 드라마로도 제작돼 화제를 모았던 ‘여명의 눈동자’도 부산에서 마무리 지었다. “서울에 살다가 1981년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한 10년 지나서 달맞이언덕에 추리문학관을 지었어요. 그 당시 이 언덕엔 아무 것도 없고, 그저 안개 덮인 바다만 내다보였지요. 추리문학관만 덩그러니 외롭게 서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좋더군요. 문화의 실체를 구현해 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으니까.”

달맞이언덕은 이제 그이젠 한 몸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됐다. “거대 도시 부산은 팔도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펄떡거리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예요. 항구도시로서 범죄도 많고 적당히 퇴폐적인 부분도 있지요. 이런 환경은 다분히 추리적인 요소를 품고 있어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시시때때로 다른 모습의 바다가 낭만

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에 묘한 패러독스를 느끼기도 하죠.”

선생은 달맞이언덕의 ‘안개’에 그만큼 매료돼 있었다.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환상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안개예요. 트릭이 필요 없을 만큼의 미스터리함, 그 자체죠.”

김성종 선생은 달맞이언덕을 ‘문화마을’로 만들 계획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선생이 주도해 만든 즐거운 인문학 축제인 ‘달맞이언덕 축제’도 어느덧 16회를 맞았다. 달을 형상화한 야외공연장인 ‘달맞이언덕 어울마당’도 그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추리문학관 1층 한편에 ‘헌책가방’이라는 헌책방도 꾸미고 있다. 그럼에도 선생은 날로 소비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는 달맞이언덕을 보며 씁쓸하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추리문학관에서는 매주 목요일이면 소설창작교실이 열린다. 김성종 선생이 지도하는 무료 강의이다. 벌써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내가 재밌으니까 무료로 하는 거지요. 끝나면 같이 밥이나 먹고, 수강생들도 재미있어 하니까. 수강생 중에 작가로 데뷔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소설 써서 생활하는 건 극소수 작가들 외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작품이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 책 안 보잖아요? 그런데도 글 쓰겠다고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선생은 책을 읽지 않는 세태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설을 영상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은 또 다른 창작이라고 봐야지. 원작과 영상을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요. 주위의 풍경이나 인물의 괴로움, 절망 같은 미묘한 감정이나 세밀한 묘사를 영상으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쓱 지나가버리지요. 여명의 눈동자



도 대부분 드라마로만 봤지, 소설이 원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상이 감각적이라면 독서는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지요.”

김성중 선생은 하루 종일 추리문학관에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글을 쓴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난다. 매년 겨울에는 일본 삿쵸로 등으로 팬들과 함께 ‘겨울추리여행’도 떠난다. 고회를 훌쩍 넘겼으나 여전히 여느 젊은이보다 바쁘고 열정적이다. “죽을 짬도 없을 것 같다”는 김성중 선생. 그의 글쓰기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바다로 열려있는 미스터리 세계로의 초대, 추리문학관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위치한 추리문학관은 김성중 선생이 1992년 3월 사재를 털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문학관이자 1호 사립전문야도서관이다. 추리소설을 포함 5만여 권이 넘는 장서를 자랑한다.

1층은 ‘셜록홈즈의 집’이라 이름 붙인 북카페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이 공간은 유럽의 유서 깊은 도서관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각종 국내외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국내외 추리소설, 일반 문헌서와 시집이 즐비하다. 2층 ‘여명의 눈동자’와 3층은 열람실과 세미나실로 이용된다. 절로 독서와 사색에 빠져들게 만드는 공간이다. 벽면에 붙은 국내외 추리소설가의 사진과 설명이 눈길을 끈다. 4, 5층은 김성중 선생의 개인 집필공간이다.

이 가을, 추리문학관에 들러 한 잔의 차와 한 권의 책을 앞에 두고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한나절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면 달맞이언덕의 가을 길을 느긋하게 산책해보는 것도 운치 있다. 열은 안개, 쏟아지는 파도 소리는 추리문학관의 선물이라 생각해도 좋다.

김성중 선생님이 추천하는 가을에 읽기 좋은 추리소설 4선



인 콜드 블러드

트루먼 캐포트 작/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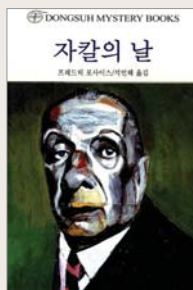
인콜드 블러드는 미공에 빠진 일가족 살인사건을 다룬 ‘세계 최초의 팩션’이다. 저널리즘의 방법론과 소설의 작법을 동시에 적용한 작품으로 소설이자 저널리즘이라 불린다.



안개의 사나이

김성중 작/뿔 출판사

어느 살인청부업자의 안개 속 청부 살인과 그의 뒤를 쫓는 형사들을 비정하고 건조한 문체로 그려낸 작품이다. 부산 해운대의 달맞이언덕, 서울 청계천변 등 친숙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속도감 있는 전개가 독자를 끌어들이는다.



자칼의 날

프레드릭 포사이드 작/동서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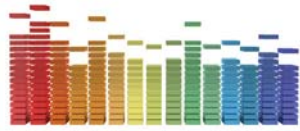
프랑스 대통령 사를 드골 암살을 기도하는 전문 살인청부업자 자칼과 자칼을 추적하는 형사의 쫓고 쫓기는 모험담을 담았다. 상세한 묘사, 치밀한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묘사가 돋보인다.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존 르 카레 작/열린책들

냉전 상황이 극에 달한 1960년대, 베를린을 배경으로 국제 첩보전의 세계를 그린다. 이 작품이 뛰어난 이유는 멋진 긴장과 매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너저분하고 근사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스파이들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SOUND DESIGN?

자동차 사운드 디자인의 세계

자동차 문을 열면 주기적으로 경쾌한 소리가 울린다.

운전석에 앉으면 안전벨트 경고음도 들린다.

주행 중에도 엔진음, 내비게이션 알림음, 방향지시등음은 물론

선루프나 파워윈도우 작동음, 각종 스위치의 터치음까지.

이 모든 소리들이 자동차 사운드이고, 모두가 사운드 디자이너에 의해 계획된 소리이다.



‘소리’로 기억되는 이미지

사람에 따라서는 소리에 노출되는 횟수나 시간에 대해 둔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 예민한 사람도 있다. 차에서 나는 소리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소리로써 강하게 남기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자동차 사운드 디자인의 핵심이다.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소리만 들어보자. 정비사들 중에는 엔진음만 듣고도 메이커와 모델 및 연식을 아는 사람이 있다. 눈 감고도 코끼리 다리를 만져서 정확히 코끼리 다리인 줄 안다는 말이다. 이는 엔진이 뿜어내는 ‘소리’가 곧 기업 브랜드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달리 말해 엔진음에는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유의 소리가 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엔진음이나, 반대로 날카로우면서 격렬한 엔진음이나에 따라 마케팅 포인트도 다르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매력적인 소리’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 과거 자동차 사운드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자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편안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고유의 소리’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자동차 사운드를 디자인한다는 것

차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리는 물론, 각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나는 고유의 소리를 전체적인 브랜드 전략과 일치하도록 조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음향환경을 어떻게 조절하고 배치하는가? 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불쾌한 소리를 제거한다. 엔진 배기음을 비롯해 필요한 각종 알람음을 적절하게 맞춘다. 데시벨(dB)이 높은 소음은 다른

분야의 소리로 상쇄시키거나 감쇄시킨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 소리 조절 과정들이 모두 자동차 사운드 디자인이다. 사운드 디자인 작업은 수천, 수만 번의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이뤄진다. 좋은 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때론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려면 주변 상황과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의 복잡한 요소를 잘 이해하고 가장 이상적인 소리의 접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사운드 디자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동일한 소리에도 호불호에 대한 저마다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다. 소리는 내적·외적 통합요인에 따라 좌우된다. 지역과 날씨, 시간, 운전자의 성격이나 그 당시의 기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소리를 다루어야 한다. 최근에는 엔진음이 없는 친환경차가 나오면서 각 자동차 업체는 청각 이미지를 잡기 위한 노력이 뜨겁다. 이처럼 자동차의 사운드는 비단 엔진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귀에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탑승자가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선루프 소리나 문 닫는 소리, 주유구 여는 소리, 심지어는 도로 위를 달리는 타이어 마찰소리까지도 디자인된 소리이다. 미래에는 바람에 나부끼는 가로수 나뭇잎 소리도 디자인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2014 성우 한가족 소통 여름캠프

자동차 부품, 아빠표가 최고!

가족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행복'과 동의어가 아닌가 싶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면,
가족은 언제나 마음을 포근하게 한다.
때문에 그런 동기가 있는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성우하이텍을 방문한 가족들의 해사한 웃음을 보고 있다면
그 말은 진리처럼 들린다.

아빠! 이건 뭐예요?

늦은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어느 날, 성우하이텍과 성우몰드 임직원 가족 및 자녀 30여 명을 초청해 '한가족 소통 여름캠프' 행사를 열었다. 행사가 있던 8월 20일, 그날만큼은 집결지인 서창공장 하늘 위에 여름다운 해가 고개를 내밀며 가족들을 맞이했다.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한 후 아빠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회사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홍보관과 생산라인을 견학하며 자동차의 뼈대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우와, 아빠 회사 멋지다!"라며 탄성을 질렀고, 이 말 한마디에 성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 처음 와보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공장견학을 하는 동안 아빠가 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자 열심히 설명하는 아빠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의 회사 방문은 자녀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아빠의 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배우자에게는 가정에서 서로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빠 회사에 다녀왔어요! 8살 김민재 군과 6살 김민서 양(생산팀 김현철 과장의 자녀)이 '성우 한가족 소통 여름캠프'에 참가한 후 그림일기를 보내왔다. 민재 군과, 민서 양의 그림일기에는 그날의 즐거웠던 기억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5살 박수영 양 (조립3반 박민수 기장의 자녀)



행복이 충전되는 시간

자녀들을 위해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도자기 물레를 돌리고, 완성된 도자기에 색칠까지 하는 동안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났다. 완성된 도자기 작품에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만큼의 행복이 담겨있었다. 배우자들은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배우자들이 밤낮 없이 일해주어 지금의 성우하이텍이 있음을 강조하며, 배우자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내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소운 씨(생산팀 김현철 과장의 아내)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직접 와서 보니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아빠가 일하는 곳을 둘러보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다”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제목	아빠 회사 견학 간담회
오늘	아빠 회사에 갔다.
하루	가다. 도차해서 회사에
이날	해버서와 공장 어와
바다	먹고 아빠가 일하는
곳을	구경했다. 아빠는 차
를	만들었다. 그리고 도자
기	도판과 고가조각도
짜	었다. 돌아갈 때는 모래
돌이	도선물로 받았다고
말	로하고 줄거웠다
다	요에행복하고
	가고싶다.

•오늘의 착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아이고, 허리! 어깨! 무릎! 발!

‘끼꿍’ 앓기 전에 미리 예방하자

직장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근골격계질환 때문이다. 몸의 특정 부위를 반복해 쓰는 공정책임자,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컴퓨터를 보는 관리사무직. 너 나 할 것 없이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오기 쉽다. 이는 근골격계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8월 28일 근골격계질환 예방 강의를 위해 서창공장을 찾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재활스포츠과 이동갑 박사는 그 해답이 ‘근육 관리’에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이유는 근육 고장

우리는 반복된 작업으로 근육이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 앓! 하고 신경을 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하게 된다. 근골격계질환은 근육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다. 근육에 피로가 쌓이면 혈관분포가 적어지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자연 골격을 지탱하는 힘도 잃게 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근육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관절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근육이 한다. 계속 수축되어 있을 경우 근육에 조그만 스트레스만 가해도 아픔으로 이어진다.

근골격계질환은 초기에 얼마나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 회복시기가 달라진다. 물론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근육관리이다. 근육관리를 철저히 하면 100세가 될 때까지 절대 아픈 일이 없다. 수축된 근육은 풀어주면 해결되고, 없는 근육은 만들어 주면 해결된다. 만약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움직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에 빠진다. 몸에 부족한 근육은 ‘근육 테이핑’으로 만들 수 있다.



1 강의를 경청하는 참석자들 2 이동갑 박사가 직접 근육마사지법을 알려주고 있다(사진 오른쪽이 이동갑 박사).

근육 테이핑이라니,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부담감은 버려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평소 약한 관절이나 통증이 있는 근육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 주의할 점은 통증 부위의 근육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테이프가 붙여진 후,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테이프 형태에 물결 주름이 만들어지면 잘 붙인 것이다. 이것으로 근육이 한도 이상으로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위로 들어올린다. 피부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그 사이로 근막 안의 혈액이 증가하고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근육의 운동기능이 향상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다.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보조하는 근육 테이핑요법



손목 통증 테이핑

◀ 손목 저림과 통증 | 장장근, 지신근 ▶



◀ 무릎 안쪽 통증

무릎 통증 테이핑

무릎 바깥쪽 통증 ▶



※ 근육 테이핑요법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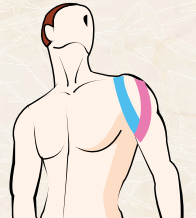
- ① 테이프는 2-3일 간격으로 붙이되 하루 정도 근육을 쉬게 한다.
- ② 테이프를 붙이는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
- ③ 테이프는 근육을 최대한 늘려서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할 때는 그 자세에서 10-15%정도 늘려서 붙인다.
- ④ 알레르기 체질의 환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붙이거나, 가려움, 호흡곤란 등이 심하면 중지하도록 한다.
- ⑤ 떼어낼 때 확 잡아 떼어내는 것은 금물이다.
- ⑥ 테이핑 한 곳이 가려울 때는 물파스를 바르면 그 증상이 제거된다.



◀ 90°이상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 | 삼각근

어깨 통증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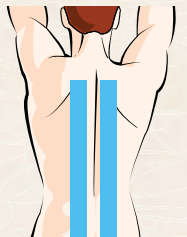
팔을 들어 올리면서
뒤로 회전 시킬 때 통증 | 극상근 ▶



◀ 서서 일할 때 통증 | 대둔근, 이상근

허리 통증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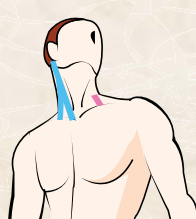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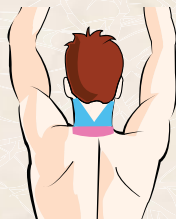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통증 | 척추기립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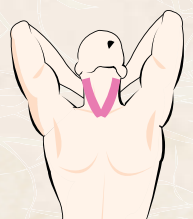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 |
경관상근

목 돌리기가 불편할 때 |
흉쇄유돌근

목을 앞으로 숙일 때 통증 |
설골근



목 통증 테이핑



햇빛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따뜻한 마음이 차오른다

1 제12회 열린마음 이웃사랑 나누기 성우하이텍 일일호프 1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름다움은 '나눔'이다. 나와 타인, 타인과 타인, 그리고 나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간의 소통에는 반드시 이 '나눔'이 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 나와 타인 간의 벽을 허물어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기도 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된 성우하이텍 일일호프가 어느새 12회째를 맞이했다. 분주히 준비하는 직원들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다.

1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과 김근수 노조위원장의 축배 2 직원들을 격려하며 건배 제의를 하는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
3 공법계획팀 조동래 사원, 신인규 사원, 심종보 사원의 신명나는 춤사위





호프 한 잔의 온도는 36.5℃

9월 26일 성우하이텍 일일호프가 열렸다. 매년 여름 끝을 지나면서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가을을 알릴 때쯤 성우하이텍은 주위의 불우이웃 및 불우사우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일일호프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 행사는 이제 성우하이텍 전



직원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 잡으며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되었다.

이번 일일호프는 양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웅상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일과를 마치고 참여한 성우하이텍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직원, 지역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라이브 공연, 각테일 쇼, 성우가족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각테일 쇼에서는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과 김근수 노조위원장님이 축하메시지와 함께 “당신! 멋져!”라는 멋들어진 건배 제의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성우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이어진 성우가족 노래자랑에서는 자재지원1팀 김동훈 사원, 공법계획팀 조동래 사원, 신인규 사원, 심종보 사원, 지사총괄팀 오윤수 사원, 출하반 유승철 기사, 코일가공반 김재희 사원이 무대에 올랐다.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우들이 무

대 위에서 춤과 노래를 뽐내며 아름다운 추억과 웃음을 선사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우들의 모습에 공연을 보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다. 성우가족들은 “주위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 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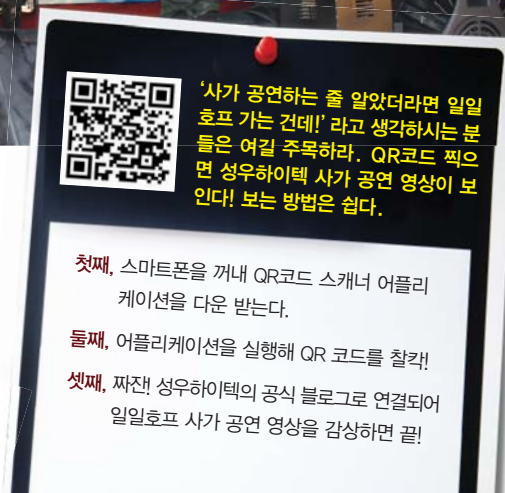
지난 여름의 풀냄새가 미처 가시지 않은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 동료와 어울려 시원한 생맥주 한 잔에 피로를 풀며 공연을 보는 즐거움은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려는 성우가족의 훈훈한 마음이 스며든 화합의 장이었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뜻 깊은 모금행사에 동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우하이텍은 주변 이웃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성우하이텍은 ‘열린 마음 이웃사랑 나누기 일일호프’ 외에도 ‘겨울애틀(에) 희망饌(찬) 김장나누기’, ‘지역 어르신 초청행사’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존의 일회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지역과 사회적 가치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성우하이텍의 사랑나눔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더욱 더 행복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다 함께 부르는 성우하이텍 사가(社歌)!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하나되어~



음악은 인류의 공통어이며 시는 위안의 기쁨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 함께 부르는 성우하이텍의 사가는 성우가족의 공통된 마음이자 기쁨이 된다. 성우가족 합창단이 발표한 사가의 리듬에 맞춰 고개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가을바람에 실랑대는 코스모스처럼 흥겹기만 하다.

2014년 초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성우하이텍 사가가 9월 26일, 드디어 공개됐다. 사가 발표회는 '열린마음 이웃 사랑 나누기 일일호프' 행사 무대와 함께 이뤄졌다. 사가는 클래식, 어쿠스틱, 모던락, 피아노의 총 4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날 무대에서는 클래식 버전의 사가를 선보였다. 총 10명의 성우가족 합창단이 조성현 상무와 함께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며 준비해 온 공연이었다. 공연은 한 마디로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사가라고 하면 모두 재미없고 딱딱한 이미지를 먼저 연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성우하이텍 사가의 쉽고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는 듣는 이의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가사 속에는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성우하이텍의 경영철학과 기업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소속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흥얼거림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진한 감동을 남긴 공연은 성우가족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한가족으로 웃음과 행복 넘치는 곳'이라는 사가의 한 구절처럼 이날 공연은 '이웃사랑 나눔'이라는 일일호프 행사의 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했다.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4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해운대 밤바다를 뜨겁게 달군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4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8월 6일 관객 1만여 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제19회 부산바다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을 장식했다.

'열린바다 열린음악회'는 부산바다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음악 콘서트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날 음악회는 '더 보컬리스트'라는 타이틀로 그룹 god의 메인보컬 김태우, 록의 여제 서문탁, 뮤지컬 배우 윤희석,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가창력 넘치는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였다.

성우하이텍, 연간 1,314MW급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가동



당사는 지사공장에 1MW급 최첨단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고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성우하이텍 1호 태양광발전소는 지사공장의 지붕 약 14,700㎡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1,314M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약 36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무공해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약 55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두게 되며, 이는 약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당사는 1호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정책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만큼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아산성우하이텍이 대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아산성우하이텍은 7월 10일 서울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치러진 이번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근로자 간 소통을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활동, 기계설비 및 복지관리 개선사례와 전 사원이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현장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우수성에 대하여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MBC 전국볼링대회 직장클럽전 준우승



부산광역시 볼링협회와 부산문화방송이 8월 26일 주최한 ‘2014 앤더스커피배 MBC 전국볼링대회’ 3분기 직장클럽전에서 성우하이텍팀이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코일센타팀 김민철 차장, 생산기술반 장재상 기장, 코일가공반 박대근 사원이 한 팀으로 참가한 성우하이텍팀은 예선 1위로 결승전에 진출하며 2007년 이후 7년 만의 우승을 노렸지만 부산광역시청팀에 막혀 아쉬운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현장을 뜨겁게 달군 성우가족의 열정적인 응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지역 어르신 초청행사 개최



당사는 8월 28일 서창공장 인근의 소주마을과 주남마을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감사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어르신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사를 마치고 공장 곳곳을 둘러보기도 하고 주변을 산책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양산시 소주공단 내에서 이러한 행사가 처음 치러진 만큼 소주마을과 주남마을에 거주하는 130여 분의 어르신께서 당사를 방문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박대조 양산시위원과 박문곤 소주동장도 함께 행사를 참관하며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지역 어르신을 제 부모님처럼 공경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회사에 직접 모셔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점심을 손수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번 활동의 취지를 전달하였다.

2014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실시



당사는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하반기 신입/경력 공개채용> 모집을 진행했다. 이번 공채는 4년제 정규대학 1년 이내 졸업예정자나 기졸업자, 동종업계 혹은 동일 직무 2년 이상의 경력을 대상으로 접수받았다. 공개채용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인턴사원으로 선발된 후 3개월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당사는 스펙 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미션을 통과한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합격의 기회를 부여하는 ‘슈퍼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캠퍼스 리쿠르팅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CEO 1일 안전학교 '안전보건경영 성공전략' 참석



8월 29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대전지방경찰청,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가 후원한 CEO 1일 안전학교 '안전보건경영 성공전략'에 ㈜아산성우하이텍 대표이사 김태일 사장이 참석하였다. 산업체의 산업안전 의식 강화와 정부의 산업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및 산업재해 척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안전예방 세미나에서 김태일 대표이사 사장은 천안아산지역을 대표하여 'CEO의 안전경영 실천결의문'을 낭독하였다.

행복한 성우가족을 위한 뜀사랑방 운영



당사는 뜀치유법을 통한 성우가족의 건강관리와 자가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10월 10일 서창공장 보건실 내 뜀사랑방을 오픈했다. 평소 쉽게 피로감을 느껴 무기력감을 호소하거나 신체부위 중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직원, 그 밖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정통침뜸 연구소 교수 일행이 직접 내사하여 상담과 치료를 하고 있다.

2014년 공정책임자 및 사무직 승진자 명찰수여식 개최



2014년 성우하이텍, 아산성우하이텍, 성우몰드 공정책임자 및 사무직 승진자 명찰수여식이 9월 26일 서창공장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당사는 성우하이텍 기술연구소장 이문용 부사장, 개발사업부장 손봉근 전무, 생산사업부장 김진욱 전무, 인사정보사업부장 도종복 전무, 성우RUS(러시아법인장) 배정수 상무, 개발사업부 조성현 상무, 성우RUS 법인장(2) 최길호 이사대우, 성우과기투석유한공사 부총경리 김형진 이사대우, 아산성우하이텍 아산2공장장 박재식 이사대우 등 총 9명의 임원 승진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기사 승진자 146명과 기장 승진자 45명을 포함한 공정책임자 총 191명과 부장 10명, 차장 7명, 과장 11명, 대리 63명 등 사무직 총 94명의 승진인사도 발표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부산지역 우수기업 선정



당사가 부산경제진흥원이 9월 26일 발간한 '행복창출의 마중물 기업들 V'에 수록되었다. 기업-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부산지역 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이 책자에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 일자리 우수기업 30곳이 소개되었다. 책자는 ▷비전 ▷복지제도 ▷근무환경 ▷선배직원의 인터뷰 ▷CEO 메시지 ▷연봉수준 등 기업 일반 현황뿐만 아니라 ▷인재상 ▷채용절차 ▷모집요강 ▷인사담당자 심층 인터뷰 ▷신입사원의 생생한 후기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당사는 2011년에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수록된 바 있으며, 본 책자는 부산청년일자리센터나 부산시 일자리종합센터, 각 고용센터 등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성우인과 함께하는 연간 캠페인!

SAVE ENERGY

SAVE EARTH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전기에너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부족한 전력을 충족시키려고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자연에게 화해를 청해보면 어떨까요?

태양광이 지붕 위로 떨어진다면?

지사공장,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친환경 에너지 활용 앞장



성우하이텍 지사공장(부산시 강서구)에 1MW급 지붕설치형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두되고 있는 전력난과 전 세계적 이슈인 온실가스 문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9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한 성우하이텍 1호 태양광발전소는 약 14,7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통상 지붕설치형 태양광발전소는 기존 시설물의 지붕을 활용하고 있어요. 토지확보 문제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사공장 태양광발전소도 마찬가지인데, 360가구가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인 연간 1,314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연간 1,314MW의 전기가 태양광발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나무 1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55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우하이텍은 이번 1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숨어있는 전기도둑을 잡아라!

해마다 4,000여억 원의 돈을 훔쳐가는 전기도둑이 있대요. 이렇게 큰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누구일까요? 그는 다름 아닌 대/기/전/력! 대기전력이란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낭비되는 전력을 말해요, '새는 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발표한 '2011년 전국 대기전력 실측조사'에 따르면 한 가구당 연간 2만 4천 원, 전국적으로는 약 4,160억 원이 줄줄 샌다는군요. 여기에 산업체 대기전력까지 보태면 기하급수적으로 줄줄 새는 돈이 늘어나겠죠. 어떻게 해야 전기도둑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용의자 1

냉장고

“내가 없으면 넌 시들한 시금치를 먹게 될 거야!”



냉장고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두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소비되는 전력이 만만찮은 것이 냉장고입니다. 그렇다고 잠시 전기를 꺼둘 수도 없습니다.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하나, 냉각코일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어야 냉각 효율이 좋아지고, 전기도 적게 소모됩니다. 냉장고 뒷면은 벽과 10cm이상, 윗부분은 30cm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둘,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도록 해요. 더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냉장고의 전력이 급격하게 소모되기 때문이죠.

셋,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마세요. 6초간 냉장실 문을 열었을 때 올라간 기온을 다시 내리려면 30분이 걸린다니, 엄청난 전력 낭비가 되겠죠.

용의자 2

전기밥솥

“내가 너의 공주님 배를 채워주고 있다는 걸 명심해!”

전기밥솥에 갑자기 배신감이 확 듭니다. 왜일까요? 하루 세 번 밥 짓고, 24시간 보온하고, 무려 1,488Wh의 전기를 소비합니다. 어떻게 전기도둑을 잡을까요?

하나, 밥을 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찬물을 사용해 밥을 하는 것보다 전기를 1/3 가량 절약할 수 있어요.

둘, 취사상태보다 보온상태가 전기 소비량이 더 높아요. 밥을 먹고 난 뒤 남은 밥은 보온상태로 두지 말고 코드를 뽑아주세요. 밥알은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밥을 먹을 때 코드를 꽂고 취사버튼을 눌러도 2, 3분만 지나면 보온상태가 되면서 갓 한 밥처럼 먹을 수 있어요.



용의자 3

인터넷 모뎀

“나 없이 네가 인터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공유기 사용자도 그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나 대기전력 소모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모뎀의 대기전력은 에어컨이나 보일러보다 높아요. 인터넷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냥 켜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TV셋톱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사용할 때만 전원 ON! 꼭 기억하세요!

"The world of best in the car body part maker"

Global leading company **SUNGWOOHITECH**

First, Thinking about **People** with **Future**



SUNGWOOHITECH

Jeonggwan Factory : Jeonggwan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2-9, Nonggong-gil, Gijang-gun, Busan, Korea / Seochang Factory : 50, Sojugongdan 3-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Jisa Factory : 70, Gwahaksandan-ro 333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 Coil Center : 151, Jangansandan-ro, Jangan-eup, Gijang-gun, Busan